

尹 “의사 수 증원, 시급하고 중요”

의사 집단행동 따른 중대본 회의 주제… “증원시 교육 질 저하 주장은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가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

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학계의 건의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장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외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뉴시스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성과 없는 인구정책 개선을”

김정수 도의원, “청년·예비 신혼부부 마음 모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문제… 본질 제대로 이뤄져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407회 도정 질문을 통해 수요자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실질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인구정책의 조속한 개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16년 만에 49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0만2,000여명 증가했으나 0세에서 48세 인구는 40만1,000여명 감소했다”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공급량이 적어 전북 개발공사가 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규모 및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7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동일한 정책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도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인만큼 정부 정책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입주인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에게까지 확대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국제학교 설립 방안 마련해야”

박정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북의 특수성에 맞는 국제학교 설립을 촉구하면서 도지사에게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교육감에게는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방안 및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도지사에게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는 전북형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에게는 “전북형 국제학교



는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투자 실행을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공공형 국제학교가 돼야 한다”며,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전북 공공형 국제학교의 교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상황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 이주민들 중 소정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하위 20% 소문 진실 밝혀달라”

민주 정희균 예비후보, 경선 상대 안호영 의원에

경선에서 배제된 후 재심에서 살아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가 상대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호영 예비후보(형 의원)에 대해 ‘하위 20% 소문 진실’ 등 공개 질의 공격에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유력자에게 줄서기만 하는 무능한 국회의원과 민주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안중에 없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 저는 기회를 잃을 뻔했다”며 “현명한 재심 위원들과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발언을 열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다. 오탁이가 되고 불사조가 되어 완주·진안·무주와 전북을 위해 일하겠다”며 “부도덕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경선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후보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경선 상대인 안호영 예비후보에게 공개 질의했다.

그는 “중앙정가와 시중에는 안호영



후보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이는 민주당원과 지역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로 사실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후보매수 사건으로 안 후보의 친형과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구속된 사건에 안 의원에 관련됐는지 여부와 의정보고서에 홍보한 2023·2024년도 연속으로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확정 400억이라는 성과가 사실인지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부도덕한 정치공작으로 멈춰섰던 완주·진안·무주 변화의 길,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길, 윤석열 정부 타도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한다”며 “더 진실하게 지역민들을 만나겠다.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국민의미래 주자로 전북 발전 견인차 역할 할 것”

조배숙 전 국립 도당위원장,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도전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6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나서 전북 발전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조 전 위원장은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입당, 5일 비례 신청을 하고 왔다”면서 “호남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을 위해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을 희망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헌당규 보면 비례대표 선출 규정에 협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례 20명 안에 5석을 배치한다는 당헌당규가 있다”며 “국민의미래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비례로 의석을 내 전라북도의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역할했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당은 부위원장께서 맡게 되신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이번에 전북 1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 당선이 되고 (저도) 비례에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 전북 발전에 견인차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새로운미래 필승 결의대회, 10일 광주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세대 신당 ‘새로운미래’가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연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

후 기자회견과 만나 10일 열리는 필승 결의대회에서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마냥 늦출 수는 없고, 민주당 경선에 저의 지역선택이 영향을 안주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